

행함이 있는 믿음

본문:야고보서 2:21-26

- 21우리 조상아브라함이 그 아들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5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의 교리는 종교 개혁의 근간이 되는 가르침이다. 곧 이신 칭의의 교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임을 말한다. 그리스도를 신뢰 하는 구원의 믿음이 행사 될 때에 죄인이 하나님의 눈에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것은 단회 적이고 종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신 칭의”의 교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들이 그 칭의를 받는 수단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편에서 하신일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선행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매우 값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엡 2:8).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수단을 통해 우리들이 받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행위에서난 것이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엡 2:9)

그런데 그 믿음이 참 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판결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의 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1. 아브라함의 믿음

24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에서 오해가 일어나기 쉽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로 오해 되기 쉬운 말이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롬 3:28, 갈 2:16). 그러나 본문 야고보서 2:24절 말씀에서 바울의 가르침과 모순 되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행함으로” 라는 말은 행위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을 말하고 있으며,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는 뜻은 행함으로 증명 되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의미한다.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21우리 조상아브라함이 그 아들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나

22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베틀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낳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23, 창세기 15:6).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은 그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바침으로 증명된 것이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는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이다.

100세나 되어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을 칼로 죽여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야속 했겠는가? 인류의 역사에 이처럼 감당키 어려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는 그런 망령된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을 금했다. 또한 이삭은 장차 하늘의 별때와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생산할 구원의 씨다. 그런 아들을 어떻게 불태워 죽여 제물로 바친다는 말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임으로 순종했다.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비록 번제로 바칠지라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히 11:19).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베틀이라 칭함을 받았나니(23) 라고 말한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산 믿음이요 구원 받을 믿음이다. 산 믿음, 구원 받을 믿음이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나무에 잎사귀가 피고 열매가 맺으면 이미 그 나무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과 같이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것은 아들 이삭을 드림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은 증거를 보여 주었다. 그랜트 오스본은 11번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 주었다고 말한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100프로 율법을 다 지켜야 하지만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함은 100프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다만 그 믿음이 진짜라고 보여 줄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믿음의 증거로 행함이 많을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욱 강해 질 것이다.

2. 기생 라합의 믿음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로서 거룩한 족장 아브라함에서 창녀인 라합을 예로 든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사람, 어떤 신분이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암시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2:25) 히브리서 저자도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한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히 11:31). 더구나 이 믿음의 여주인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의 한 사람이었다(마 1:5). 라합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에 대한 영광스러운 증언이다.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기 전에 이미 신자였다.

여호수아서 2:9-13

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기생으로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를 들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성경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처럼 기생 라합은 이미 신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고 탈출을 도왔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러나 그녀가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위험을 감당해야 했겠는가? 그 일이 발각 되면 온 가족이 몰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덧 입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 했던 것이다. 자기를 건져 주실 것을 믿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주의 사자를 도울 수 있는 행동이 나왔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돕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헌신한 사람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외면한다면 그런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에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선한 동기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도울 때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 개인의 구원만을 가져 온 것이 아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끊임 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일어 나야 한다.

전에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많은 돈을 들여 “예루살렘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젊은 대학생들이 모이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어른 들이 모이기에는 그 건물이 여러 가지로 불편했다. 그래서 몇몇 헌신적인 사람들이 새 건물을 구입하기 위한 기도를 했다. 어려운 가운데 많은 돈을 드려 예배당을 건축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새로운 건물을 구한다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로 새 건물로 교회가 옮기게 되어 학생 중심의 교회가 일반 어른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 교회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야고보의 결론은 26절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26) 이 말씀은 17절과 20절과 같은 내용의 반복이다.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은 생명의 원천인 영혼이 없는 몸, 무가치하고 악취가 나는 송장과 같다. 올바른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 즉 선한 행실로 그 결과를 내는 믿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단지 한 사상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산 믿음을 가지고 자연인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창조해 내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힘차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